metro
메트로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제2792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2

마흔 넘더니 물오른 전미선

"으~ 살 것 같네"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전몸을 뒤집어 쓴 호랑이와 북극곰이 11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대가리를 흔들어 물기를 털어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를 내렸으며 15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고 예보했다. /뉴시스

오늘 발전기 한 대만 고장나도 '블랙아웃'

전력수급경보 '경계' 불가피 2011년 순환단전 재연 우려

윤상직(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 관련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칫 발전기 한 대만 불시에 고장이 나도 2011년 9월 15일과 같은 순환 단전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내일부터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업계, 공공기관, 가정, 상가 구분 없이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지하 2층 종합상황실에서 전력수급위기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에서 전력수급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이 폭염과 겹치면서 블랙아웃(대정전 사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산자부는 12~13일 이틀간 전력 공급 능력은 시간당 7744만㎾이지만 시간당 최대 전력 수요는 8050만㎾(수급 대책 시행 전 기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예비력이 -306만㎾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절전규제, 산업체 조업 조정, 민간 자가발전 등 상시 수급 대책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예비력이 180만㎾ 안팎에 머물러 전력수급경보 4단계인 '경계' 발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경보 '경계'는 9·15 전력대란 당시 예비력이 20만㎾까지 떨어지면서 '심각' 단계가 발령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 당국은 긴급 비상 조치를 동원해 예비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발전기가 1개라도 가동을 멈춘다면 예비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수단인 순환 단전'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일산 열병합발전소 가스터빈 압부기 고장으로 17시간이나 가동을 멈췄던 것으로 확인돼 블랙아웃 공포를 더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9일 오후 9시20분께 갑자기 멈춰선 일산 열병합발전소 가스터빈 3호기(공급력 10만㎾)가 긴급 복구 덕분에 10일 오후 2시4분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노인 진료비 연 311만원 든다

국민 1인당 평균의 3배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 진료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태 부연구위원의 '노인 진료비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는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해마다 증가했다.

2008년 12조5170억원이던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4조1500억원, 2010년 15조8720억원, 2011년 17조1530억원, 2012년 16조3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1.2%에서 2012년 34.3%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난해 311만4000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106만8000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맞춰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계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계출기자 hsoul38@

'뿔난 봉급쟁이' 달래라

여, 세제개편안 '3450만원 가준선' 상향 검토…민주는 증세 반대 서명운동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가 '중산층 세 부담 줄이기'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11일 1년에 16만원을 더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을 기준인 총 급여 3450만~7000만원인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기준선인 3450만원을 높여 증세 대상자를 줄이거나 평균 부담금액인 16만원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같이 줄어들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율을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다자녀 추가·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등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 조정된 10%에서 현행 15%로 원상복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한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대대적인 세법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세무통'으로 꼽히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자·대기업·고액 자산가에 대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직장 과세를 하고 중산층의 주요 지출 항목인 교육비·의료비·보험료 같은 필요 경비적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과 함께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구성, 민주당 대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극기자 grass136@metroseoul.co.kr

오늘 말복 '견공의 절규'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이 말복을 하루 앞둔 11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 입구에서 개 식용 반대 구호를 적은 팻말을 두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중국·동남아 관광객 복수비자 발급 확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의 입국이 한층 쉬워진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국과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거나 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인 중 복수비자 신규 발급 대상은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베이징·상하이 호적 보유자, '211 공정대학'(중국 정부가 지정한 우수 대학 112개) 재학생이다.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는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를, 2회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

/김유리기자

뉴스&뉴스

환경분쟁조정위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도 배상"

● 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를 본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봤다는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3명은 2008년부터 약 4m 떨어진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 방지 대책을 사업주에게 요구했다. /김유리기자

서울시,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 제한구역 31곳 확대

대표님 좋아하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앞서 여성 당직자로부터 올타월을 선물받고 있다. /뉴시스

● 서울시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동안 학교 앞 50~400m 구간에 허용하는 '등·하교 시간 통학로 차량통행 제한 구역'을 31곳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곳은 총 10곳으로 성북 내곡초가 하교 시간(오후 2~3시), 나머지 9개 초등학교는 등교시간(오전 8~9시)에 각각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김유리기자

명동 짝퉁 41%는 '샤넬'

루이뷔통 뒤이어 … 상품별로는 액세서리 최다

명동·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가장 많이 파는 짝퉁 브랜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는 1월부터 7월까지 명동, 남대문시장 등 구내 주요 상권에서 상표법 위반(짝퉁 브랜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7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압수품은 2만2546점으로 정품 가격 11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브랜드별로는 샤넬이 41%(9154점)를 차지했고 루이뷔통 25%(5669점), 구찌 8%(1728점) 순으로 많았다.

정품가로 환산하면 샤넬 44억원, 루이뷔통 32억원, 구찌 12억원이다.

상품별로는 반지·목걸이·귀걸이 등 액세서리가 39%(8783점), 양말 20%(4459점), 지갑 11%(2372점), 선글라스 8%(1725점) 순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액세서리 41억원, 지갑 22억원, 선글라스 14억원, 가방 10억원, 벨트(허리띠) 4억원대다.

/[illegible]

"사고기 승객 1100만원 주겠다"

아시아나, 소송 포기 대가 배상액 일부 선지급 제안 논란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난 214편 여객기의 모든 탑승객에게 손해배상액 일부로 1만 달러(약 1100만원)를 선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다만 선급금의 조건으로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業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부터 당시 사고 여객기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연락해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사고기 승객과 가족 여럿이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아시아나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한 탑승객의 아버지는 선급금을 받으려면 동의해야 하는 8가지 조건 중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illegible]

뉴스 & 뉴스

임신 20주 낙태여성 벌금형 … 의사는 집행유예

● 낙태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혐의(낙태)로 기소된 B(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신 20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씨에 겐 징역 6월, 의사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 패터슨 한국송환 불복 소송 패소

●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34·사건 당시 18세)의 한국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중순께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키로 한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인신보호청원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요건이 갖춰진 만큼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부정입학 노현정 1500만원 벌금형 선고

●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단독 서경환 판사는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독성 해파리' 비상

61명 쏘여 응급처치 … 일부 해수욕장 입욕 통제

제주 지역 해수욕장에 독성 해파리가 출현, 일부 해수욕장의 입욕이 통제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2시20분부터 8시 사이에 제주 함덕서우봉해변에서 26명이 물놀이를 하다 해파리에 쏘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비슷한 시간 이호테우해변에서도 피서객 16명이 해파리에 쏘였고, 김녕성세기해변 10명, 협재 5명, 삼양 3명, 금능 1명 등 총 6개 해수욕장에서만 61명이 해파리에 쏘였다.

해경은 오후 늦게부터 일부 해수욕장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리스톤입방해파리 60여 마리를 수거했다.

리스톤입방해파리는 크기가 3cm 내외로 작지만 촉수는 가늘고 길어 10cm가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출현하는 해파리 중 작은부레관해파리와 함께 맹독성 종에 해당한다.

제주 해경은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김녕성세기해변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독성 해파리가 완전히 수거될 때까지 입욕을 통제하기로 했다.

/[illegible]

물 반 사람 반 폭염이 계속된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잠실 수영장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송도서 '넘버원 해양스포츠축제' 팡파르

15일부터 4일간 열려 – 방문객 위한 체험행사 다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축제인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15일부터 4일간 부산 송도해수욕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 행사는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100년 송도 해양의 꿈, 부산 서구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요트(15~18일), 비치발리볼(15~17일), 핀수영(15일), 카누(17~18일), 트라이애슬론(17~18일) 등 5개 정식 종목과 바다수영(18일), 드래곤보트(16일), 고무보트(17일) 등 3개 번외 종목이 진행된다.

서구는 대회 기간 선수와 임원 5000여 명을 포함해 연 인원 5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방문객들을 위한 각종 체험과 해양 문화 행사 이벤트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먼저 해상 체험 행사로 페들링보트·토우잉보트·모터보트 등 해양레포츠 체험(6종)과 해수풀 풀 고래슬라이딩·해동이슬라이딩·파이슬라이딩·에어볼락 등 해양 어드벤처 체험(11종)이 무료로 진행된다.

육상 체험 행사로는 송도 추억 체험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물놀이·페달보트·범퍼보트를 비롯해 모래 배 만들기, 송도 티셔츠만들기, DIY 시계 만들기 등 24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 밖에 가족비치발리볼대회, 오늘의 포토제닉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리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축하 비행(15~16일 오전 11시), 해군작전사령부 해군함정 공개(17일) 등도 마련된다.

한편 15일 오후 7시30분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앞서 케이윌, 비투비(BTOB)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식전 행사로 펼쳐진다.

/황윤기기자 ksh@metroseoul.co.kr

우리 동네 역사·문화 공부하며 무더위 날리세요!

수첩 들고가는 재송역사박물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역사와 민담, 설화를 볼 수 있는 전시물과 선조들이 사용했던 물품을 전시한 '재송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박물관은 재송1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전통시장인 재송시장 내에 33㎡ 남짓한 빈 공간에 최근 조성됐다.

박물관은 고대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송동의 옛 흔적과 재송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사진, 근현대 재송동의 변화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등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래 설화 등이 보기 쉽게 정리돼 부모님 세대가 사용했던 생활 물품도 30여 점이 함께 전시돼 있다.

정사름 주민자치위원장은 "잊혀져가는 지역의 역사를 한 곳에 정리해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재송동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려 우리가 사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재송역사박물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재송1동 주민센터 (051-749-6144)

동래 역사 배우고 이수증도 따고

부산 동래구는 동래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사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동래 역사와 문화재 교실'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차 문화재교실은 13~16일(15일 제외), 2차는 9월 24·26, 27·30일과 10월 2, 4일 각각 실시된다.

대학교수, 박물관장,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동래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이론과 답사,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대회 교사와 시민, 동래구문화재시랑봉사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첫날인 13일에는 개강식에 이어 ▲문화재로 본 고대의 동래 ▲조선시대 행정과 국방의 중심, 동래 등의 강의와 답사가 동래문화회관 소극장과 복천동 고분군 등지에서 실시된다.

14일에는 ▲동래의 문화재 현장 답사 ▲동래학춤 체험 실습 등을 망미루와 부산민속예술관 실내공연장 및 놀이마당에서 갖는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동래의 문화재 현장 답사 ▲동래의 무형문화재 등을 주제로 동래부 동헌, 동래향교, 동래문화회관 등지에서 이뤄진다.

참가 교사들에게는 연수 학점이 인정되고 시민들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한다. /뉴시스

부산여대-부산경찰청 업무협약 부산여자대학교 총장 황세창 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8일 부산지방경찰청 등백홀에서 장학금 지원과 업무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신라대 발명동아리 발명대회 주요상 싹쓸이 신라대 발명 동아리 'E.P.C.J' 소속 학생들이 지난 6일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그레이 어워드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대회 및 2013 국제청소년인력발명품전시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주요 상을 휩쓸었다. 왼쪽부터 김기진 교수, 김현곤, 조윤혁, 윤승민, 노치동, 전지훈, 박성중, 권석현씨. /신라대 제공

대학생 '수학 울렁증' 무료로 고쳐요

동명대 '수학클리닉' 인기

동명대는 '수학 울렁증'을 조기에 치료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무료 수학 클리닉 교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학 울렁증 치료사는 김동률 책임교수(메카트로닉스공학과)와 김문희(자율전공학부)·신승수(정보보호학과)·허정훈 교수(외래교수) 등 4명.

수학 기초가 부족해 고민하는 저학년과 고급 수학을 배우는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일대일 과외 방식으로 무료로 시도하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시작된 수학 클리닉 교실에는 1학기 498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466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김동률 교수는 "대학은 스스로 공부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곳인데, 진정 자신이 원하는 학문 분야라면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이겨내야 할 것"이라며 "수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 수학 클리닉 교실로 올 것"을 주문했다. /뉴시스

'재무제표 활용한 주식투자' 내일 무료특강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13일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부산지회에서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재무제표를 활용한 주식투자'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기업의 언어인 재무제표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통한 과학적 투자 방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재무제표 주식투자-시장을 이기는 과학적 주식투자법'의 저자인 민후식 파인투자자문 대표가 나선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 신청은 e메일(busan@kofia.or.kr)이나 전화(051-867-9719)로 하면 된다.

하반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16일까지 160명 신청접수

국립부산국악원은 12일부터 16일까지 하반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악문화학교는 주 2회 2시간 12주 과정으로 일반인 160명(8개 반 20명씩)을 대상으로 한다.

강습 기간은 9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과목은 한국춤, 시물놀이, 가야금·해금 등 4과목이다. 수강료는 과목당 8만 원.

수강 신청은 부산국악원 홈페이지(busan.gugak.go.kr)나 팩스(051-811-0045)로 하면 된다.

문의: 051)811-022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번지 142
TEL 02)721-9800 FAX 02)731-1551
홍콩판매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흥혁
편집국장 조현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형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8-2100
독자센터 02)721-6811
2000년 5월 20일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부산 일본뇌염 위험수준

채집모기 90.9% '작은빨간집모기'… "야외활동 자제"

국립부산검역소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일본뇌염 유행 예측을 조사한 결과 최근에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비율이 90.9%(8851마리 중 8047마리)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본뇌염 감염 위험 수준이라고 부산검역소는 설명했다.

부산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 비율이 64.4%(1127마리 중 726마리)로 확인돼 지난달 4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경보를 발령한 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개월 만에 90%를 초과한 것이다.

부산검역소는 또 자세 검사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양성 의심 검체가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에 물린 사람 중 95%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두통, 복통 및 경련, 의식 장애 등의 신경과적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에는 일본뇌염 환자 20명이 발생해 이 중 5명이 사망했다.

부산검역소 관계자는 "일본뇌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10월 하순까지 가정에서는 방충망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 긴바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경우 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일규기자 iahn@metroseoul.co.kr

부산은행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성세환(왼쪽 원쪽 셋째) 부산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지난 9일 수영구 정마동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무료 급식 봉사를 열었다. /부산은행 제공

부산교통공사 '품질 7관왕'

차량·운전 ISO 인증 획득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운영의 핵심 분야인 차량·운전 부문 ISO 9001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공사는 전동차 정비와 검수 등 차량 분야와 열차 운전 절차, 위기 상황 대응 등 운전 분야에 대해 국제적 품질경영 시스템인 ISO 9001 인증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 신호, 통신, 교육, 환경 보전 분야 외에 차량과 운전 분야까지 ISO 9001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도시철도 품질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국제 규격에 부합한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으로 대외 신뢰도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인적 오류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은 "도시철도 운영의 핵심 분야인 차량과 운전 부문에서 공사의 관리 능력이 국제 수준임을 이번에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세계 최고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안일규기자

사상구 납세고지서 '깨알활용'

뒷면에 문화축제 등 홍보

부산 사상구는 납세고지서 뒷면 여백을 활용해 새롭게 변모하는 구의 발전상과 문화·축제 행사 등을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상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고지서에 지역 명소와 각종 축제·행사 등을 알리게 된 데는 세금 납부고지서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사상구의 자랑거리를 보다 많은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납세고지서에 홍보할 내용으로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사상인디스테이션, 삼락천, 음악분수대, 삼락생태공원, 디누리센터, 백양산 삼각봉 전망대 등 6곳의 지역 명소와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사상전통달집놀이, 사상강변축제 등 대표축제 3개 등 모두 9개의 자랑거리를 선정했다.

이달부터 과세되는 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10만6000여 장부터 시작해 연간 85만 건 이상의 각종 납세고지서 뒷면에 게재해 홍보할 예정이다. /뉴시스

예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부산문화재단 수강생 모집

부산문화재단은 9월부터 부산지역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매개·장르 융합형 기획자 양성 과정'과 '아트&퍼스널 브랜딩 과정', '예술 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등이 개설돼 3개월 과정으로 20~24회에 걸쳐 강의가 진행된다.

부산문화재단은 95명의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 지원과 함께 월 20만원씩 참여수당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상현광장 공사 도로폐쇄

부산시 건설본부는 '송상현광장' 조성 공사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기존 차량 통행구역인 부산진구 상전교차로~송공삼거리 중앙로 구간을 14일부터 완전 폐쇄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본부는 이에 따라 중앙로 양측에 신설된 범천동측 도로(4개 차로)와 전포동측 도로(3개 차로)로 이용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로열 베이비→ 키다리 왕?

191cm 아빠+175cm 엄마=195cm '왕실 최장신' 예측

metro Russia

최근 러시아 학자들이 영국 '로열 베이비'의 예상 키를 발표해 화제다.

아동 성장·발달 분야 권위자인 예카테린부르크의 블라디미르 제카쉐프 박사는 "20년 후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아들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의 키가 195cm가 될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영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지 왕자는 10세 때 150cm가 되며 15세 때는 184cm에 이르게 된다. 제카쉐프 박사는 부모인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키, 영양 섭취, 생활 습관 등과 같은 유전공학적 요소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제카쉐프 박사는 "현재 로열 패밀리 중 가장 키가 큰 사람은 191cm의 윌리엄 왕세손"이라면서 "윌리엄 왕세손을 제외하고 지난 700년 왕실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왕은 '키다리 왕'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1세로, 그의 키는 188cm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지 왕자가 아버지보다 4cm 더 큰 예상 키로 차기 키다리 왕자리를 예약했다"고 덧붙였다. /정다운 조선미기자

아들과 명문대 순회비행하다 추락사

아들의 명문대 입시를 앞두고 경비행기로 대학 순회 구경을 나섰던 부자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 트위드 뉴헤이븐 공항 인근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출신 자선사업가 빌 헤닝스가드(54)가 몰던 개인 비행기가 추락, 가정집 2채를 덮쳐 총 4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헤닝스가드와 그의 아들 맥스윌(17)이 숨졌고, 붕괴된 집에 있던 한 살배기와 열세 살짜리 어린이도 사망한 채 발견됐다.

헤닝스가드는 입시를 앞둔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비행기를 직접 조종, 미국 동부의 명문 8개 대학을 차례로 구경시켜주던 중이었다. 이날 사고는 예일대를 방문하던 중 일어났다. 헤닝스가드는 1983년부터 14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했다. /조선미기자

10일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서 비행기 잔해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이 더위에… 보기만해도 후끈후끈 10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벌 떼 턱수염' 관련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얼굴에 꿀벌을 잔뜩 붙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구글, 독도가 맞거든요

美 실리콘밸리 한인 엔지니어들, 광복절 앞두고 표기변경 항의 '사이버 시위' 준비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인 엔지니어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구글 지도에서 독도 표기가 변경된 것에 항의하는 사이버 시위를 준비, 눈길을 끌고 있다.

엔지니어 7명은 '독도이름 찾아주기' 사이트(www.FixYourMaps.com)를 제작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네티즌 프로필을 구글에 항의하는 독도 관련 로고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들은 당초 네티즌들이 직접 구글에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자체 사이트를 완성했다. 하지만 구글 측이 갑자기 이 페이지의 운영 방식을 바꿔 사실상 사이버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용자의 프로필 등에 자신들이 고안한 독도 표기변경 요구가 담긴 로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이버 시위를 펼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시위대는 이를 위해 한국 내 유명 트위터 사용자 50명과 네티즌이 많이 찾는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4일부터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번 사이버 시위는 실리콘밸리의 모바일 게임업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지난해 구글이 독도와 명칭과 주소를 변경한 것에 실망, 현지에서 구글에 항의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구글은 지난해 독도·다케시마 등 해 일본해 등 4개 지역에 대한 구글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독도 표기를 바꿨다. 업데이트 이전 구글 지도에서 영어로 'Dokdo'를 검색하면 지도와 함께 한국 주소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 하지만 현재 구글 지도에는 독도 지도만 표시될 뿐 한국 주소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미기자 sscnm@metroseoul.co.kr

담배 끊게 하려면 "냄새나요" 면박 줘라

"담배냄새 한번 고약하네요."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전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대학 연구팀은 대평양 섬나라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끊게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다 악취 등 개인 위생 문제를 우려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마리와 글로버 박사는 "금연 권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등 감정에 호소하는 이유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악취가 난다는 것은 개인 위생과 관련된 것으로 수치심, 당혹감, 불명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냄새 전략'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흡연자를 무시하는 말투로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日 국민 71% "현생활 만족"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내각부의 올해 '국민생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10.7%,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다'는 60.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가 생활에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3.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조선미기자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치료 3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툭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형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이.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런데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그냥 계념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지 지렛대리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 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다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를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3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불룩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판판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무지외반증이나 내향성 족지발톱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틀뜨리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 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arket index 〈9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880.71	554.83	2.81	1111.50
(-3.28)	(-0.37)	(-0.01)	(-1.00)

은행예금 1000조 첫 돌파

은행 예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단기 대기성 자금이 일시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예금 총액은 1008조81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연말 기준 예금 규모는 최근 9년 연속 증가했다. /김민지기자

임신 22주내 챙겨야 할 '건강부적'

생보는 소아암 등 질병… 손보는 실손 보장

김민지기자의 짠순이 주부 경제학

■자녀 첫 보험 '태아보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나 역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엄마가 되자 고 다짐했을 때가 생각난다. 그래서 두 아이의 첫 선물로 태아 보험을 선택했다.

이 보험은 아기가 산모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질병 상해 사고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건강 부적'이라 부르기도 한다.

태아 보험은 무엇보다 가입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보통 생명보험사의 경우 16~22주, 손해보험사는 임신 직후부터 22주 내 가입을 해야 한다.

만약 22주가 지나게 되면 태아 특약 가입이 불가능해지니 꼼꼼하게 미리 하자. 태아 특약으로는 선천성 이상, 신체 마비, 인큐베이터 등 비싼 의료비가 보장돼 있다.

내 아이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는 것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나의 경우 보장폭이 넓은 상품을 골랐다.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태아 보험 비교 사이트(www.teabigyo.com)를 이용해도 편잘다.

또 하나 주의할 점. 태아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따라 보장에 차이가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소아암, 백혈병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고액의 보장이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보장이 한정돼 있다.

손해보험사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비용만 보장받을 수 있다.

두 종류의 보험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 보장의 폭이 넓은 손보사 어린이 의료실비보험을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mj@metroseoul.co.kr

휴가철에도 뛰는 전셋값 – 51주째 상승 11일 한 시민이 서울 성동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휴가철 비수기에도 성북 0.35%, 성동 0.31%, 마포 0.24% 순으로 올라 51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

절세 유리한 '체크' 할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여 체크카드 가입 크게 늘듯

본격적인 체크카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 서비스를 갖춘 체크카드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가운데 세제 혜택 등도 체크카드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절세에 민감한 직장인들이 지갑에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꺼낼 일이 더 많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내리고서 최근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에서 다시 5%포인트 인하를 추진한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0%로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종전의 30%가 유지돼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율 격차가 더 벌어진다.

따라서 연소득의 25% 넘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이익이다. 반면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 신용카드 사용을 유지하면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

발 빠른 직장인들이 체크카드로 갈아타면서 체크카드 발급 수는 고공 행진을 잇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발급된 체크카드 수는 1억184만 매로 처음으로 1억 매를 넘어섰다. 신용카드처럼 대중교통, 통신요금, 커피, 놀이공원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체크카드 상품들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각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신상품 개발로 대응에 나섰다.

한 가맹계 카드사 관계자는 "세금 혜택에 따라 소비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고객을 잡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기자 hkim@

LTE-A 앞 '팔랑귀 스마트폰족'

아직 대도시서만 속도 2배·전용 콘텐츠 부족
기존 약정 끝난후 단말기 할인될 때 '갈아타기'

"LTE-A 스마트폰 사는 게 좋을까? 더 버텨볼까?"

삼성과 LG가 나란히 LTE-A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앞서 삼성은 갤럭시S4의 LTE-A 모델을 SK텔레콤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TV를 켜면 유명 배우들이 등장해 "OO는 뭉이라고 하고 우리는 LTE-A라고 합니다"라며 관련 상품을 띄우는 CF가 자주 나온다.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LTE-A가 빠르다곤 하는데 정말 빠를까. LTE 단말기 산 지도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단 속도. LTE-A는 LTE보다 이론상으로는 2배 이상 빠르다. 속도와 관련한 사연은 통신사에서 수치화 진행한 바 있어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커버리지는 따져봐야 한다. LTE-A면 배도 아직 서비스 초기이기 때문에 망보는 '전국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대도시 위주로만 네트워크가 깔린 상태다.

즉 1초에 영화 7편을 받는다 와 같은 모 기업의 스마트폰 광고는 서울에나 광역시 인근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용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재 LTE 단말기를 쓰는 제 지 않은 유저들이 2년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 LTE-A 지원 단말기를 사려면 사실상 기존(LTE 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

약정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이래저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LTE-A 단말기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인이 거의 되지 않을뿐더러 보조금도 매우 적다. 결정적인 것은 이통사들이 LTE-A 전용 콘텐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개발 중이거나 나왔더라도 초기 버전의 미성숙 상품인 경우가 많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관계자는 "호기심 많은 얼리어답터가 아니라면 느긋하게 5세대 통신 서비스를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미국 치즈로 만든 '치즈볼' 11일 서울 롯데마트 명동역점에서 바캉스 시즌 아이를 간식거리와 야외용 맞추 대용으로 좋은 미국 전통 치즈로 만든 치즈볼(411g 1통)을 7700원에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 건설단신

쌍용건설 '무재해 1000만 인시'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싱가포르 도심지하철(DTL) 921 현장이 착공 50개월 만인 이달 초 싱가포르 지하철 최초로 무재해 1000만 인시 인증을 받았다.

싱가포르 지하철 무재해 최고 기록인 700만 인시를 훌쩍 뛰어넘은 대기록이다. 오는 2016년 3월 완공 시점에는 약 1600만 인시 무재해라는 사상 초유의 진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6월 착공한 이 현장은 공사 구간이 1km에 불과하지만 현존하는 모든 지하철 공법(NATM, TBM, 오픈컷)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김민지기자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 분양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4개사가 공동으로 8월 말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에서 왕십리 뉴타운 1구역 텐즈힐을 공급한다.

왕십리 뉴타운 1구역 텐즈힐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총 21개 동, 전용면적 기준 59~148㎡(공급면적 기준 83~179㎡) 총 1702가구 규모로 이 중 60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김민지기자

75세도 최대 2000만원 암 보장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대장암·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뇌암·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아이폰5S 내달 10일 공개"

올 연말로 미뤄질 것으로 보였던 애플의 '아이폰5S' 공개가 오히려 예정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에서 2연승을 거둔 애플이 4일 발표될 '갤럭시노트3'와의 정면 승부를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온라인판 올싱스디지털이 다음달 10일 아이폰5S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폰5S는 1270만 화소로 향상된 카메라와 A7으로 알려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간 업계 및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지문인식 기능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꿈의 TV' 가격인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000만원 대 고가 TV 가격을 대폭 내렸다.

삼성은 지난 6월 출시한 55인치 곡면(커브드)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TV 제품 가격을 150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34%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무빙 스피커, 카메라 등 프리미엄 기능을 제외해 가격 부담을 크게 줄인 65·55인치 기본형 울트라HD(UHD 초고해상도) TV를 12일 출시한다. 가격은 65인치가 890만원, 55인치는 590만원이다. 앞서 지난 6월 출시한 65·55인치 프리미엄형 제품은 각각 1090만원과 740만원이어서 이들 제품보다 18~20% 저렴하다. 지난해 8월 첫선을 보인 84인치 울트라HD TV는 2500만원이다.

이들 제품이 저렴(?)해진 것은 무엇보다 생산 효율(수율)이 개선된 데 있다. 패널 공급이 안정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비싼 가격 탓에 수요가 적어 재고가 쌓였을 가능성도 있다. /박상훈기자

곡선코스 청소도 부드럽게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2013 삼성전자 S 데이 모션싱크 청소기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이 드라이빙 코스처럼 제작된 레이싱트랙을 따라 모션싱크 청소기를 체험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7월 자동차 내수 올들어 최다

수입차 호황 덕에 지난달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량이 올 들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증가한 14만6423대로 집계됐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14만6991대가 팔린 이후 올해 1~6월에는 11만~13만여 대 수준으로 침체됐으나 7월에 실적이 치솟았다. 아반떼·제네시스·K3 등 주요 차종의 가격 할인과 픽스크루즈·카렌스·트랙스·코란도 투리스모 등 신차출시 효과, 수입차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월간 최대 판매 실적이 나왔다.

특히 수입차는 7월 한 달간 1만4953대가 팔려 월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수입차 중에는 지난해 7월보다 무려 124.3% 증가한 폴크스바겐이 돋보였다. BMW도 25.7% 실적을 끌어올려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국산차도 2.9% 증가한 12만5689대가 팔려 올해 월간으로는 가장 실적이 좋았다.

국산차·수입차를 아우른 판매량 톱 10 브랜드는 현대차, 기아차, 쉐보레, 쌍용차, 르노삼성, BMW,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토요타 순이다. /채성욱기자 zac@

치료목적 성형수술 비과세

달라지는 세제 관련 정책 <1>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성형수술 세금 부과, 소득공제 개편, 자녀장려금 지급 등 국민들 지갑에 영향을 줄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민들이 헷갈릴 만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모든 성형수술에 부가세?=한 제 부가세(10%)를 물리는 성형수술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 지방 흡입, 주름살 제거 등 5가지다.

정부는 여기에 덧붙여 입술 확대나 축소 수술, 귀 성형, 눈 성형(안검), 양악수술, 사각턱 축소술, 피부 시술(여드름·모공·기미·점·주근깨·미백·제모) 등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미용 목적이 아닌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즉 씹는 기능이나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양악수술, 시력교정술, 흉터 제거, 사시 교정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농민들 농업소득에 과세?=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농업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맞다. 다만 연수입이 10억원 이상인 농업소득, 그것도 채소·화훼·종묘재배 과일 재배업으로 10억원 이상을 벌 경우에만 과세한다.

쌀이나 보리 등 곡물 재배로 인한 수입에는 지금처럼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농사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연수입이 12억원인 경우에도 실제 세금은 수십만원에 그친다.

▶비정규직 채용하면 세금 혜택?=정부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때문에 기업들이 일부러 비정규직을 채용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자녀만 있으면 장려금?=정부는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에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 총수입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고,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지 않고, 다주택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요건에 맞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김국헌기자 khkim@metroseoul.co.kr

'전세대란' 비상대책 세워라

청론탁설

유병필 <언론인>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때 아닌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부터 53개월째 전셋값이 올라 무려 33%나 뛰었다. 실제로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새 5000만원이나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다.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고 연간힘을 다하고 있기는 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이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에 계류 중이고 취득세 영구 인하는 적용 시기 문제로 아직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매매 수요가 전세로 몰려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전세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다 전셋값은 앞으로 1년 사이에 10% 더 오를 전망이라는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반월세가 일반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전셋값이 오르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전셋값이 10% 상승하면 민간 소비는 3.1%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 또한 1.64%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세대란은 서민 보호와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우선 정부는 전세대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랐다면 과감하게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체제를 개편해 임대 사업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입장에서 금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거치후 원리금 상환 구조를 선진국처럼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공급 구조도 타이밍에 맞춰 물량을 조정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 전세대란을 수습하는 일이라면 정당 간의 '샅바싸움'을 떠나 초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 경제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는 판에 전세대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예측할 수 없는 사회 불안이 야기될지도 모른다.

'세컨드'의 유혹

뉴스룸에서

전효순 <생활레저부장>

비가 잦던 2주 전쯤 일이다. TV를 틀면 홈쇼핑 방송에서 '이것'을 사란다. 아열대로 변하는 요즘 날씨에 아주 쓸모 있단다.

가지도 이것, 즉 제습기를 사야 하나 귀가 솔깃했다. 밤새 선풍기 바람에 말렸는데도 퀴퀴한 냄새가 나는 수건으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닦을 때, 제습기를 예찬하는 말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런데 제습기만큼은 사고 싶지 않았다. 우선 놓아둘 데가 마땅치 않았다. 공간도 버거웠나 집 안엔 제습기 친구들이 이미 많았다. 살균제 파동이 나기 전까지 쓰던 가습기와 가습기를 대체하기 위해 구입한 에어워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산 공기청정기와 바이러스 잡는다는 항균 청정기 제품까지 먼지 쌓인 채 방치돼 있다.

세상은 넓고 살 것은 많아지고 있다. 주방과 다용도실은 터져나갈 듯하다. 요즘 주부들의 위시리스트에는 건강에 좋다는 에어프라이어와 원액기부터 소다수 제조기, 식품 건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캡슐커피 머신 등이 오른다. '강남 냉장고'라 불리는 한 이탈리아 브랜드 냉장고는 세컨드 냉장고로 유행이란다.

청소기만 해도 음식 부스러기를 비로 처리할 무선 청소기와 햇볕이 주부에게 꼭 필요하다는 로봇청소기, 세균을 없애 주는 스팀청소기에 진드기를 처리할 침구 청소기도 갖춰야 한다. 기존 세탁기 옆엔 아이 옷만 빨래하는 미니 세탁기까지 있어야 한단다. 숨이 찬다.

우리가 사는 집 크기는 그대로이거나 쪼그라들고 있는데, 사야 할 건 무섭게 불어났다. 가전업체들은 새로운 '틈새 시장'이라며 세컨드 가전이나 대체 가전을 출시하고 알리는 데 주력한다. 소비자로서 충분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이지만 진짜 필요해 꾸준히 쓰는 건 몇 안 된다. 소비자란 똑 부러지듯 보이지만 결코 지혜로운 집단은 아닌 듯하다.

요즘 3평에 불과한 '스몰 하우스'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늘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것을 더하는 셈법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빼고 나니 딱 3평만 한 공간만 필요했다고 말한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는 그들이다. '무소유'를 강조한 법정 스님도 말했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매였다는 것"이라고.

기자는 제습기를 사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들어봤지만 결국 사고 말았다. 그리고 여전히 '내년까지 어디에 두나' 하며 후회하고 있다. 또 읽어버리고 만 불쌍 소비자다.

포토프리즘

오전엔 '돌폭탄'… 오후엔 물장난

오전과 오후의 날씨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 지난 11일 오전 한 시민이 비닐봉지를 뒤집어쓴 채 걷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비가 그치고 폭염이 내리쬐자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분수대에서 뛰어놀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바람의 길, 별의 숲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매미 우는 소리가 아침을 깨운다. 마치 시원한 소나기가 '쏴'하고 쏟아지는 느낌이다. 아파트 일대는 그 소리에 때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젠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풍경이 되고 있다. 어느새 열대처럼 변해버리고 있는 여름을 견디게 하는 자연의 선물은 도처에 존재한다. 동남아의 스콜처럼 잠시 뿌려대다가 지나가는 비도 지열을 식혀주는 고마운 일상이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우산을 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풍속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를 불평하는 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런데 도시에 고층 건물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바람은 제 갈 길을 잃고 말았다. 나무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던 태고로부터의 습관은 건물의 밀림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길인가 싶어 가다가 쿵 하고 부딪히고, 저 길인가 하고 가다가 어이쿠 하고 놀라는 격이다. 유연한 물놀길으로 헤엄치듯 흐르던 바람은 그만 부상자가 되고 말았다. 바람 길이 뚫려 있던 예전에는 한낮의 태양으로 온통 열기에 가득 찼던 대지도 해가 저무는 시각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대지가 그렇게 쉬면 사람들도 바람에 몸을 맡기고 여름의 매혹에 빠졌다.

사실 도시에선 별도 길을 잃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은하수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여름의 별미 가운데 하나는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장강(長江)처럼 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물결을 감상하고, 때때로 지상을 향해 낙하하는 별똥별을 보면서 "아!"하고 감탄하는 기쁨이었다. 도시의 천상에서 별들은 바람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어디에 꼭꼭 숨어있는지 자기들을 발견하라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는다. 바람과 별이 만나는 숲은 그만 사라졌고, 그 숲에서 태어나던 문학도 언젠가부터 실종됐다. 자연이 준 터전을 버리고 선택한 도시는 도구적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에 느긋한 여유로움을 가져가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자꾸만 곤두서고 날카로워지고 있으며 관대함과 상상력이 빈곤해져가고 있나 보다. '길과 숲'이 주는 그 아련한 물결을 망각해버린 존재들의 슬픔이다. 이 여름이 지나기 전 우리는 실종된 자연의 선물을 다시 찾아오는 마음을 가꾸는 이들이 됐으면 싶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바람의 길을 따라 별의 숲으로 가는 산책. 날로 삭막해져가는 오늘의 시대가 갈망해야 할 정작의 꿈은 아닐까?

문화공감과 소통

기자수첩

탁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요즘 뮤지컬 공연장을 다니다 보면 몇 년 전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 눈에 띈다. 모녀나 부자 등 가족 관객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누가 누가 연기를 참 잘하더라" "이 장면이 참 좋았다"라고 서로 속닥속닥하면서 공연장을 나서는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공연장이 속속 설립돼 그에 걸맞는 대형 공연이 제작되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 소비 욕구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변화다.

그러나 예전엔 이런 풍경을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특히 배고픔을 겪어본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부모들에게 문화 생활은 사치나 다름 없었기에 공연장을 가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자연히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세대로 자란 자녀들과의 소통 격차는 날로 커져갔다.

그런데 먹고사는 걱정에 덜한 요즘 젊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소통 단절 문제는 여전하다.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심화된 더욱 악화된 모양새다. 밥상에서도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생활 공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단 뮤지컬뿐 아니라 어떤 작품이든 함께 보면 같은 관심사가 생기기 때문에 대화가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에는 함께 손잡고 공연장 나들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

'손현주의 아내' 그림 될 것 같았죠

결혼과 출산을 거친 뒤 더욱 아름다워지고 생기발랄해진 40대 여배우를 꼽으라면 단연 전미선(43)이다. KBS2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에서 골드미스 중학교 국어교사 김선미로 나와 생애 첫 코믹 연기를 경험한 데 이어 14일 개봉될 새 영화 '숨바꼭질'에선 낯선 자의 침입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중산층 가정주부 민지 역을 맡아 역시 처음으로 스릴러의 맛을 만끽했다. "갈수록 연기가 재미있어진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그의 얼굴에서 오히려 행복한 기운이 넘쳐 흐른다.

스릴러 영화 '숨바꼭질' **전미선**

◆평범한 가정주부 역할 처음

지난해 늦가을 '숨바꼭질'의 시나리오를 받고 단숨에 읽었다. 그리고 고민했다. 민지 역을 제의받았지만,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여인 주희(문정희) 역이 내심 탐나서였다.

"솔직히 민지는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험하니게 욕만 먹을 캐릭터죠. (웃음) 그런데 남편 성수 역의 손현주 선배와 (문)정희 사이에 끼어있는 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봤더니 의외로 나쁠 것 같지 않더군요. 쓸데없이 나서지 않는 대신, 극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추는 데만 전력투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결과물이 괜찮아 안심했답니다."

연기 생활 24년 동안 숱한 영화에 출연했지만, 대도시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연기하긴

연기경력 24년 베테랑
횟수 만큼 재미도 커져
최근 시트콤 출연 이어
스릴러물 도전도 처음

의외로 이번이 처음이다.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의 시골 아낙('참 살아보세') 내지는 동성 제자와 사랑에 빠지는 남편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아내('번지점프를 하다')가 전부였다.

그는 "내 실제 생활, 내 실제 나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캐릭터를 이제야 만나기 시작한 것 같다"며 "그렇다고 중산층 가정주부 연기가 쉽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캐릭터 하나 쉬운 게 없다"고 엄살 아닌 엄살을 떨었다.

◆시트콤 속 '웃긴 전미선' 뒷얘기

앞서 6개월간 시트콤에 출연하면서는 환희와 좌절을 동시에 맛봤다. 코믹 연기에 서서히 눈을 뜰수록 '난 왜 애렇게 안 웃길까, 순발력이 없지…'란 고민에 뜬눈으로 밤을 새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힘이 돼준 건 함께 출연한 이재룡과 도지원의 격려였다. 후배인 이준과 김태준의 응원도 한몫했다. 나중에는 별말 없이 이들의 얼굴만 봐도 축 처졌던 어깨가 불끈 솟아오를 정도였다.

"어쩌다 보니 제가 출연진 가운데 딱 중간 나이대였어요. 선배들을 챙기고 후배들을 이끄는 다리 역할을 도맡아야 했는데,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꽤 잘하네더라고요. (웃음) 좋은 기분에 술값을 계산한 탓에 지갑은 가벼워졌지만요."

◆'엄마'와 '여자' 사이 성장통

아들 출산 이후 출연했던 드라마들마다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황진이' '에덴의 동쪽' '제빵왕 김탁구' '로열 패밀리' 등으로, 개인의 욕심보다는 아들에게 좀 더 좋은 경제적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이를 악물고 연기한 결과다. "엄마가 되고 나서 책임감이 커졌다고나 할까요. 어찌 보면 대단히 현실적인 이

최근 출연작마다 흥행
엄마되니 현실이 보여
이 악물고 노력한 결과
내 전성기는 지금부터

유로 (출산 이후) 복귀한 셈인데, 절박했던 제 마음이 통했나 봐요."

이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인 연기 내공은 물론 높아진 인지도까지 덤으로 얻었지만, 정작 전미선 본인은 여전히 성장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래의 여배우들이 대부분 그렇듯 '여자'와 '엄마'의 사이에서 향후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해서다.

그는 고민 가득한 표정으로 "선배들로부터 '여배우에게도 40대 중후반이 진짜 전성기다. 그때부터 농염하고 성숙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란 조언을 자주 들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털어놓은 뒤 "할 수만 있다면 '여자'와 '엄마'의 이미지를 함께 가져가고 싶다. 종착지에선 은은한 향기로 대중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고 싶은 게 최종 목표"라며 활짝 웃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서울북리본드미디어 디자인/김아람

그린데이 콘서트 온 듯

'日서 미리 본 뮤지컬' 음악만으로도 감동

stage review ■ 아메리칸 이디엇

펑크한 분위기의 클럽 같은 무대의 벽면을 가득 채운 40여 개의 텔레비전 모니터에 이라크 전쟁, 백무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맥도날드 로고 등 미국과 관련된 뉴스와 가십, 광고가 쏟아지듯 나온다. 그리고 한 소년이 "바보 같은 미국인이 되기는 싫어, 대중매체에 좌우되는 국민이 되기는 싫어"라는 가사가 담긴 세계적인 록밴드 그린데이의 히트곡 '아메리칸 이디엇'을 부른다.

다음달 5~22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열릴 내한 공연에 앞서 8일 일본 도쿄국제포럼에서 먼저 선보인 뮤지컬 '아메리칸 이디엇'의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팀 투어 공연의 한 장면이다.

2009년 초연돼 이듬해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이 공연은 수록곡 전체를 그린데이의 7집 콘셉트 앨범인 '아메리칸 이디엇'으로 구성한 독특한 형식의 뮤지컬이다. 여기에 암울한 교외 지역에서 살던 세 청년이 각자 다른 운명을 쥐으면서 성장하는 줄거리를 덧입혀 9·11 사태 이후 조작과 선전으로 도배된 미디어가 판치는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과 정체성의 혼란을 표현했다.

도시로 간 조니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약물중독에 빠지고, 터니는 텔레비전 속 권력욕과 애국심을 조장하는 이미지를 보고 군에 입대하지만 다리 한쪽을 잃는다. 윌은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교외에 남았지만 무력감에 시달려 약물과 술에 중독된다.

◆ 무대 위 베드신·마약 중독 등 파격

마약에 중독된 모습, 무대 위 베드신 등 내용이 파격적이다. 젊은이들의 반항과 혼란을 파격적인 형식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언뜻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떠올리게도 한다.

다만 세 청년이 고향에 돌아간 마지막 장면은 다소 아쉽다. 90분 동안 미국 사회를 날서게 비판하다가 돌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김 빠지고, 그 과정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도 그린데이의 음악이 있어 감동은 반감되지 않는다. 또 토니상 뮤지컬 부문 최우수 무대디자인상과 조명디자인상을 받은 작품답게 무대 벽면 전체를 감싼 스크린과 수많은 모니터가 그린데이의 음악과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오디뮤지컬컴퍼니는 첫 내한 공연을 통해 한국 정식 라이선스 공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젊은이들이 경험한 암울한 현실이 한국 관객의 정서에 얼마나 통할지가 성사 여부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출과 공동 각색을 한 마이클 메이어는 9일 일본에서 열린 내한 공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청년들의 좌절과 성장을 그린다는 점에서 시대를 불문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또 음악이 세계 공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극 '클로저' 31일 대학로서 '스타트'

연극 '클로저'가 31일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에서 개막한다.

영국의 젊은 극작가 패트릭 마버의 대표작인 이 연극은 아슬아슬하게 얽힌 네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상처 입히면서 집착과 탐욕 등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표출해내는 과정을 적나라하면서 감각적으로 조명해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1997년 5월 영국 런던 초연 당시 권위 있는 해외 유수의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휩쓸었으며 2004년에는 줄리아 로버츠·주드 로·나탈리 포트먼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총출동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내 무대에서도 문근영 등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가 됐다. 올해엔 이윤지(왼쪽 사진)·진세연·한초아가 여자 주인공 앨리스를 번갈아 맡고, 신성록(오른쪽)·최수형·이동하가 댄 역을 연기한다. 문의 1566-7527 /박성훈기자

또디 by 정연식 <716>이상한 이야기1

wind8686@naver.com

star bag

"극장데이트? 경리는 친구"

샤이니의 종현이 나인뮤지스 경리와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종현은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화를 함께 보러 간 지인들은 그저 내 친구들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이일로 괜한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애설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종현과 경리가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다는 추측성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SNL 코리아' 통해 깜짝복귀

방송인 유세윤이 음주운전 자수 사건 후 두달 여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유세윤은 10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에서 '숨 늘늘2'와 영화 '설국열차'를 패러디한 코너에 크루로 깜짝 등장했다. "여기 경찰서 아니에요"라고 외치거나 두부를 먹는 등 자신의 자수 사건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셀프 디스로 웃음을 선사했다.

"K팝 스타 '쿠키 찍어내듯' 양성"

美 뉴욕타임스 한국 가요계 시스템 꼬집어
"똑같은 춤·노래교육·성형수술로 다듬어져"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서 연예 스타가 되기 위한 과외가 성행하는 현상을 소개하며 K-팝의 획일성을 지적했다.

신문은 10일(현지시간) 예술면 머리기사에서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학원에서 춤과 노래를 배우고 있다. 이런 학원들이 수천 곳이나 되며, 비보나 발레를 가르치던 기존 음악·무용 학원들도 K-팝을 교과과정에 넣는 등 변화하고 있다"면서 밤마다 연습하는 학생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딴따라'로 경시되던 연예인이 교사·의사와 함께 인기 직군으로 떠올랐으며, 대학에서도 실용음악이 학생들이 가장 탐내는 전공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K-팝 성장을 꼽으며 3대 연예기획사인 SM·YG·JYP의 지난해 매출이 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3억 2600만 달러(약 3629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업 다양화 속 또다른 획일화

또 골퍼 박세리,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가수 싸이 등의 성공으로 엄격한 한국 사회 구조에서 직업 선택이 다양해진 점도 이유로 덧붙였다.

이와 함께 K-팝 스타가 되기를 바라는 청소년들이 '헬릿 슈퍼스타K 5' 등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몰리고 있는 현상을 소개하면서 주 7일 학원에 다니고 밤마다 유튜브를 보며 춤과 노래를 공부하는 여고생의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마치 쿠키를 찍어내듯 똑같은 춤과 노래, 성형수술로 다듬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없어 쉽게 잊혀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획일적이고 창의력이 없어지는 계약 시스템을 꼬집었다.

/박준원기자 jak0427@metroseoul.co.kr

for Stardom at Korea's K-Pop Schools

...rea — Kim Chae-young attends cram school five ... toiling deep into the night. But unlike most young

한국의 획일화된 스타 양성교육을 언급한 뉴욕타임스 기사의 홈페이지 게재 화면.

이병헌·이민정 '세기의 결혼식'

말코비치 등 ★축하영상
"고마운 신부, 시집살기로"

배우 이병헌과 이민정이 900여 하객의 축하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10일 오후 6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원로배우 신영균이 주례를 맡았고, 이범수와 신동엽이 각각 1·2부의 사회자로 나섰다. 축가는 박정현·대니정·김범수·박선주가 불렀다.

또 이날 이병헌이 출연한 영화 '레드: 더 레전드'의 딘 패리소트 감독과 헬렌 미렌·조시 하트넷·존 말코비치·캐서린 제타 존스, 기무라 타쿠야와 성룡 등 해외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도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부케는 연예인이 아닌 이민정의 10년지기 친구가 받았다.

이병헌은 결혼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혼 생활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민정씨가 너무나 고맙게도 내가 살던 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결혼식장에 700여 팬들이 몰려 혼잡이 빚어짐에 따라 12일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체류 장소와 일정은 팬들에게 비밀로 부쳐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머물 곳이 알려지면 팬들이 몰릴 것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탁진현기자

마초 하정우 "강동원도 내 부류"

연예가 소곤소곤

▶군도 서 첫 만남 "잘 통한다"

하정우(사진)가 신작 '군도: 민란의 시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강동원에 대해 "아주 남자다운 친구"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습니다.

하정우는 "이번이 첫 만남인데 함께 생활해 보니 외모답지 않게 정말 '마초 더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 굉장히 잘 맞는다. 즐겁게 어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가대표'의 대박을 함께 일궜던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가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얼마전 만난 김 감독님이 걱정했던 것보다 씩씩해 안시를 놓았다"며 "김 감독님이 '네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잘되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밑밥 깔았다'고 말해 한참 웃었다"고 귀뜸하더군요.

▶연날 차이는 여배우A 굴욕 끝낼까

이른바 '바람맞기 전문'으로 통하는 여배우 A가 불명예를 떨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지 연예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는 공식적으로 교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출연하는 작품마다 상대 남자배우와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며 남다른 매력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그러나 작품이 끝나거나 열애설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무렵에는 어김없이 상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아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A와 새 작품에서 만난 남자 배우 B는 서로 호감을 드러내며 촬영장에는 훈훈한 러브모드가 감지되고 있다는데요. 지인들은 오랜 아픔을 겪은 만큼 A가 이번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견배우C '양성애' 다 아는 비밀

한 남성 중견배우 C가 양성애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 앞에 커밍아웃만 하지 않았을 뿐 평소 언행이 여성스러운데다 자신의 성향을 굳이 감추지 않아 이 얘기는 주위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아내와 큰 딸까지 있지만 이런 성향은 바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지인은 "C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면서 "성별과는 무관하게 양성의 매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에게 끌리는 편"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서양인삼’ 알로에 또 한번 한류 예고

유니베라 전세계 알로에 원료시장 절반 점유
'알로엑스골드 맥스피' 면역다당체 함량 화제

univera

유니베라가 올해 출시한 '알로엑스골드 맥스피'(이하 '맥스피')가 최근 알로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휩쓸고 있다.

맥스피는 유니베라만의 기술력을 집약,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알로에 면역 다당체' 성분 함량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출시 한 달 만에 목표 대비 240%가 넘는 매출을 올리며 '알로에 신화'를 써가고 있다. 대부분의 알로에 건강기능식품들이 100~200mg 정도의 면역 다당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맥스피는 면역 다당체 함유량이 300mg(1일 섭취량 기준)으로 월등히 높다. 국내 현존하는 알로에 건강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다.

알로에의 뛰어난 우수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11일 SBS TV는 '일요특선 다큐멘터리-한국인이 키워 세계를 먹인다' 편을 통해 우리나라를 알로에 종주국으로 만든 기업과 그 비결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 알로에 불모지 의 개척자

'알로에 종주국'이란 명예를 이뤄낸 유니베라는 1976년 국내 최초로 알로에 건강보조식품 제조에 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 알로에 산업을 개척해온 (주)남양알로에의 새로운 이름이다. '서양의 인삼'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 생소했던 알로에를 1976년에 소개한 것을 넘어 해외에 대규모 알로에 농장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알로에 소재를 연구 개발해 글로벌 알로에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유니베라는 전 세계 알로에 원료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다. 지식경제부 주관 세계일류상품에 10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알로에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20년간 알로에 신약개발 노력

유니베라가 우리나라를 알로에 종주국으로 만든 성공 비결은 '연구하는 기업'이란 일관된 기업 철학에 있다.

유니베라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알로에 신약 개발(CAP 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 프로젝트를 꾸준히 계속해오고 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간 진행된 제1기 CAP 프로젝트를 통해 천연 생약으로서 알로에의 기능성을 입증했고, 제2기 CAP 프로젝트(2002~2005년)에서는 알로에의 효능을 실용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6월부터 시작된 '제3기 CAP 프로젝트'에선 알로에이 담대사 조절 기능을 밝혀냈다. 이어 2010년부터 '제4기 CAP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밝혀진 몸에 좋은 알로에 소재를 제품화하는 작업이 적극 진행됐다.

그리고 올해 CAP 프로젝트 20주년을 맞아 알로에의 새로운 발견을 일궈냈는데 바로 '알로에 면역 다당체'의 놀라운 효능이다.

삼육대 약학대 김경제 교수팀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팀 등이 쥐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알로에를 많이 섭취할수록 면역세포인 백혈구 생성에 효과가 있고 만성 염증 상태를 개선해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확인했다.

유니베라의 저력은 전세계적으로 뻗어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알로에 농장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유니베라는 1985년 미국 텍사스 할링겐을 시작으로 1989년 멕시코 탐피코, 1995년 러시아 연해주, 2008년 중국 하이난 등에 천연물 농장을 설립했다. 총 구장 크기의 5000배에 달하는 총 3320만3390㎡ 규모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농장에서는 연간 5만6000t의 알로에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알로에 원료는 미국 현지를 비롯해 유럽·아프리카·아시아 등 세계 40여 개국 700여 기업에 공급, 유니베라가 글로벌 웰니스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1588-1976 /한효순기자

마시는 주스타입 건강식품 '맥스피' 면역력 증진 도움

마시는 주스 타입의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인 '알로엑스골드 맥스피'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알로에 면역 다당체' 성분 함량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극대화한 제품이다.

유니베라 도선길 웰니스 연구소장은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세균 등이 유행하면서 최근 건강 주요 이슈로 면역력이 떠올라 간편하게 마시는 것만으로 면역력을 충분히 케어한다는 점이 '맥스피'의 성공 이유"라고 설명했다.

알로에를 그냥 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도 소장은 "알로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생초를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가공이 된 제품을 섭취하는 게 면역력 증진과 위생 면에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추석선물 예약판매 할인 스타트!

롯데마트 등 오늘부터 접수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빨라진 추석 연휴에 맞춰 유통업계가 발 빠르게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롯데마트는 오늘(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104개 점포와 롯데마트몰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사전 예약 판매한다.

판매 품목은 한우와 굴비 등 신선식품 15종, 햄과 포도씨유 등 가공식품 29종, 샴푸를 비롯한 생활용품 14종 등 모두 66종이다. 추후에 약품목을 100여 종까지 넓힐 계획이다. 대표 품목 가운데 찬일영 참굴비 세트 2호(10미리 1.2kg)를 11만8000원, CJ 특선 S-1호를 5만1800원, 백화 커피세트 77호를 1만8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롯데·신한·KB·삼성·하나SK·외환카드로 구매하면 30%까지 할인하며 카드에 따라 구매 금액별로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주문한 제품은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AK플라자 구로본점과 분당점은 12일, 나머지 점포는 15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을 받는다.

박은수 영광굴비 등 명장의 이름을 건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홍금이 협유된 천예금수 농산물세트 등 다양한 단독 상품을 선보인다. 예약 기간 10% 할인과 우선 배송 혜택을 준다. /메지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나이트 러닝화 '푸마 글로우' 빛나네 스포츠 브랜드 푸마가 11일 서울 청계 푸마 매장에서 러닝화 '모비움 엘리트 글로우'를 소개하고 있다. 모비움 엘리트 글로우는 불빛이면 빛을 반사하는 야광 기능을 갖춰 야간 러닝 시 안전사고를 예방해주고, 관절에 무리가 올 가능성을 줄이는 [illegible] 러닝에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웅진플레이도시 '비키니퀸·근육킹' 콘테스트

종합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15일 워터파크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비키니퀸과 근육킹을 뽑는 '서머 핫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스타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아놀드 홍과 올짱 개그맨 김상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테스트는 참가자들의 경연 외에도 신인 아이돌 그룹 1D 와 NOM의 축하무대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이색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1등에게는 약 300만원 상당의 시상금과 부상(상금 100만원+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 스파 연간 이용권·아놀드홍짐 연간 회원권·프로필 사진 1회 촬영권)이 주어지며 2·3등 및 인기상과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시상품이 증정된다.

서머 핫 콘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wplaydoc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77-5773 /메지영기자

운동하다 무릎 '악!' 났겠거니 하다 '악!'

30대 이후엔 연골·반월상 연골판 약화 시작 통증땐 관절 초음파 검사후 조기 치료 필요

갈수록 늘어나는 현대병인 당뇨·고혈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운동만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인해 잦은 부상이 발생하는 부위가 있으니 바로 무릎이다.

30대 이후가 되면 연골·반월상 연골판의 상태가 이전과 달리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운동을 하다 순간적으로 무릎을 삐끗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처음에는 저절로 좋아지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을 못 할 정도로 통증이 진행되고, 무릎이 붓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상호병원 유상호 병원장은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친 경우는 대개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것"이라며 "이는 MRI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MRI나 관절 초음파에서는 연골판의 손상이 점처럼 보이면 1도, 선처럼 보이면 2도, 선처럼 보이면서 파열이 확실하면 3도, 연골판의 모양 자체가 일그러진 심한 파열이면 4도로 구분한다. 보통 3도 이상의 파열이 발견되면 관절 내시경 수술을 권유받게 되고, 1도나 2도에서는 연골 주사 등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확실한 3도 이상의 파열이어서 관절경 수술을 한 사람 중

>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경우는 대개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것 이는 MRI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가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무릎을 싸고 있는 인대가 외부 충격이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늘어나거나 부분 파열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초음파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인대 이완은 엑스레이(X-ray)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MRI를 찍어봐도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MRI는 대개 2~3mm의 간격을 두고 전체적인 모양을 찍어보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관절 인대 이완은 놓치기 쉬워서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인대 손상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인대 이완의 경우 인대를 강화하는 프롤로 인대강화주사 또는 DNA 주사 요법이 통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치료법은 퇴행성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프롤로 인대강화주사는 인체에 무해한 고삼투압 용액을 늘어나거나 파열된 인대 부위에 주입해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의 변형을 억제해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 DNA 주사는 혈관 내 섬유아세포, 콜라겐과 같은 성장인자를 자극해 세포의 증식과 상처 치유를 촉진시켜주는 치료법으로 타 치료법보다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상호 병원장은 "대개의 무릎 손상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릎 통증이 있을 경우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재용 기자

더위에 면역력 '뚝'…대상포진 환자 급증

폭염 속에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겨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이가 많아 체력이 떨어지고 더위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기 쉬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포진 진료비 지급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병의원을 찾은 사람은 2008년 41만7273명에서 지난해 57만3362명으로 5년 동안 37.4% 증가했다.

특히 여름철에 환자가 많이 몰려 지난해 7월에는 월평균 진료 인원인 6만3717명보다 12.5% 많은 7만1683명이 병원을 찾았다. 8월의 환자 수 역시 평균보다 15.0% 많은 7만332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와 60대 등 50대 이상의 노인 환자가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22만6323명, 여성이 34만703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재용 기자 hcout38@metroseoul.co.kr

엄홍길 휴먼재단 관절염 무료치료 후원

연세사랑병원과 '재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후원협약체결

경제적인 사정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환자를 위한 후원 캠페인이 진행된다.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은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과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란 무릎 관절 내 위치한 연골이 손상돼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인공관절 수술'과 '줄기세포 치료' 등 두 가지가 권한다.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 대부분이 손상됐을 때인 말기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본래 자신의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초·중기에 시행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으로 '연골 재생'을 골자로 한다. 아직 어린 세포인 줄기세포를 연골 병변에 주입, 연골로 분화하게 만들으로써 다시 재생시키는 원리다. 줄기세포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성인의 골수, 제대혈(탯줄 혈액), 지방 등에서 채취할 수 있다. 줄기세포 치료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통증을 감수해야 했던 초·중기 관절염 환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엄홍길(왼쪽 둘째) 대장과 고용곤(왼쪽 셋째) 연세사랑병원장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세사랑병원과 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엄홍길휴먼재단은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파트너 연세사랑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후원한다. 후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다.

◆소외계층에 희망 전달 파트너 – 엄홍길휴먼재단·연세사랑병원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2008년 국내외 청소년 교육 지원과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은 '청소년 희망원정대',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산행'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휴먼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히말라야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단 파견과 환자를 직접 후송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히말라야 희망날개 프로젝트' 등이다. 또 네팔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휴먼스쿨' 건립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병원으로, 세포치료연구소를 설립해 무릎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연구의 성과로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발표한 줄기세포 치료의 연골 재생 효과가 국제 학술지 더 니(The Knee)에 게재된 바 있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일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연세사랑병원과의 이번 후원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팝업창을 통해 신청

건강 책갈피

◆내 남자의 뱃살

나틀 시니어 외/이룸다온사람들

"어느 순간부터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이저씨로 군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이성에게 인기 좋은 남자가 될 시간이다. 여성들은 지나친 근육을 부담스러워한다. 식이 조절로 배가 들어가 어깨와 허리가 외지기 시작했다면 본격적으로 멋진 [illegible]을 만들어보자. 와이셔츠만 입어도 핏이 살고, 청바지와 흰 티셔츠만 입어도 여자들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뒤돌아보는 남성으로 다시 태어나자."

–뱃살과 전쟁 중인 남성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흔 뱃살과의 전쟁

우에모리 키요/Style조선

"뱃살 운동을 수준히 했는데도 허리둘레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잘못 되지 않았는지 꼭 거울 앞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날렵하고 멋진 몸매는 복근을 이렇게 쓰느냐에 달렸다."

–10년 동안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이어트법

/황재용기자

남자농구 16년 만에 세계무대 진출

아시아선수권 대만 꺾고 3위…내년 월드컵 티켓 확보

한국남자농구가 16년만에 월드컵대회(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유재학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3-4위 결정전에서 대만을 75-57로 완파했다.

비록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3위에 올라 1위 이란, 2위 필리핀과 함께 내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었다. 한국의 월드컵 대회 출전은 1998년 이후 처음이자 통산 일곱 번째다.

대만은 지난달 존스컵 국제대회에서 만나 완패한 국가라 부담이 컸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유 감독의 지도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승리했다. 시작부터 철통 수비로 미국 NBA 출신 귀화 선수 퀸시 데이비스 등 대만 선수들을 꽁꽁 묶었고 양동근(모비스), 김민구(경희대)의 3점포를 앞세워 29-13으로 경기를 리드했다. 2쿼터에도 김민구의 3점슛을 앞세워 50-29, 21점 차로 달아나 도망갔다. 3쿼터에 들어서 슛 난조에 빠져 대만에 36-50, 14점 차로 추격 당했으나, 이내 양동근의 자유투 2개와 윤호영(상무), 김민구의 3점슛이 터져 다시 점수 차를 벌렸다. 4쿼터에도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며 71-49로 앞서 나갔다.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자 한국 대표팀은 코트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월드컵 진출의 기쁨을 표현했다.

이날 김민구는 3점슛 5개 포함 21득점을 기록해 우승에 큰 힘을 보냈고, 팀의 최고참 김주성도 12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이름값을 했다.

/최신혁기자 tak0427@metroseoul.co.kr

한국 선수들이 대만을 꺾고 3위를 결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손흥민 개막전 결승포

레버쿠젠 이적 화끈 신고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새롭게 시즌을 시작하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1)이 2013-2014 시즌 정규 리그 개막전 결승골로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다.

손흥민은 10일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1분 만에 시즌 1호골을 터뜨렸다.

올 시즌을 앞두고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4일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에서 4부 리그 립슈타트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정규리그 첫 경기에서도 홈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맛을 봤다.

이날 레버쿠젠은 손흥민-슈테판 키슬링-시드니 샘을 나란히 스리톱으로 세웠고, 이들이 모두 한 골씩 터뜨려 3-1로 승리했다.

스리톱 중 왼쪽에 나선 손흥민은 전반 13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시원한 오른발 중거리 슛을 날리는 등 가벼운 몸놀림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레버쿠젠은 전반 22분 키슬링의 헤딩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이후 손흥민은 전반 31분에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날카로운 슈팅을 때렸으나 크로스바 위를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다. 레버쿠젠은 전반 40분 마이케 한케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1-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은 골 지역 왼쪽에서 샘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 한번에 침착하게 마무리해 앞서가는 골을 만들어냈다. 레버쿠젠은 후반 7분 샘의 추가골로 승기를 굳혔다. 손흥민은 후반 25분 시몬 롤페스와 교체됐다.

한편 아우크스부르크에 임대를 마치고 볼프스부르크로 돌아간 구자철(24)은 하노버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10분까지 뛰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볼프스부르크는 하노버에 0-2로 졌다.

/김민준기자 mjkim0

"손, 잘할 줄 알았어" 손흥민(왼쪽)이 10일(현지시간) 프라이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후반 결승골을 터뜨린 뒤 팀 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10일)

■ 목동

팀				
한화	011	400	000	6
넥센	000	001	101	3

[illegible]

■ 잠실

팀				
LG	000	000	201	3
두산	000	000	001	1

[illegible]

■ 문학

팀				
롯데	106	001	010	9
SK	010	100	011	4

[illegible]

■ 광주

팀				
삼성	000	401	000	5
KIA	010	163	01X	8

[illegible]

추신수 시즌 13호 도루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볼넷으로 출루해 시즌 13호 도루를 기록하고 득점도 올렸다.

추신수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류현진 14일 하비와 '최고 영건' 격돌

류현진(26·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최고 영건으로 떠오른 맷 하비(24·뉴욕 메츠)와 격돌한다.

류현진은 14일 오전 11시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메츠와의 홈경기에 시즌 23번째 선발 등판한다. 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제물로 5연승과 함께 시즌 11승(3패)째를 수확한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을 2.99로 떨어뜨렸다.

야구 팬들은 류현진의 12승 달성 여부와 함께 하비와의 맞대결에도 관심이다.

빅리그 2년째인 하비는 평균 시속 154㎞짜리 광속구를 던지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에이스 저스틴 벌랜더와 쌍벽을 이루는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이 매긴 젊은 영건 순위에서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풀타임 메이저리거 첫 해인 올해 9승 3패, 평균자책점 2.09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탈삼진(178개), 이닝당 출루 허용률(WHIP 0.86)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time did you get up yesterday morning? 어제 있었던 일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어제 종일 일을 했어?
B Yes, I did.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어.
A What time did you go home?
B 6시에 집에 갔어.
A What did you do after dinner last night?
B 저녁을 먹고 난 후 이메일을 확인하고는 11시까지 일했어.

정답 Did you work all day yesterday? /
I worked from early morning until late at night. /
I went home at 6 o'clock. /
After dinner I checked my email and worked until 11.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생생영어팁

▶ I go to work at 8. VS. I get to work at 8

이 두 문장은 모두 우리말로 '나는 8시에 일하러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go to work at...은 일하러 떠난 시각을 가리키고, get to work at...라고 하면 직장에 도착한 시각을 가리키게 됩니다.

get to는 장소나 위치 등을 말할 때 자주 쓰이죠. 예를 들어 How can I get to Shinchon?을 직역하면 '신촌에 어떻게 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즉 '신촌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의 뜻이 됩니다.

should

▶ should + 동사원형 (부정: should not 또는 shouldn't)

1 충고, 권유: 권고. ~하세요, ~좀 해 (~하는 게 좋겠다의 의미)
You should exercise. 운동 좀 하세요.

2 제안: 우리 ~할까요? (주어로 I나 we로 쓰여 의문문에서만 쓰임)
Should we go out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놀러 나갈까요?

▶ 핵심문법 확인학습_우리말을 보고 빈칸을 채우세요.

1 그거 한번 해보세요. You _______ _______ it.
2 저는 지금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I _______ _______ home now.
3 우리 오늘 밤에 뭐 할까요?
What _______ we _______ tonight?

정답 1. should try / 2. should go / 3. should do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Carro Rentals offers flexible rate plans that make renting a car easy whether for business _______ pleasure.

(A) or (B) and
(C) if (D) either

02 Weekend passes to Lawton Amusement Park are _______ fo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urchase.

(A) valid (B) accurate
(C) original (D) actual

01. [illegible]
해설 whether와 짝을 이루어 'A든지 B든지'를 나타내는 (A) or를 쓴다.
어휘 flexible 융통성 있는 rate plan 요금제
정답 (A) or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A) valid를 써야 한다.
어휘 pass 출입증, 입장권 valid 유효한 accurate 정확한 original 원래의 actual 실제의, 사실상의
정답 (A) valid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1. Read a text aloud

단어의 강세 법칙

• 지역 명칭의 강세

지역 명칭의 발음과 강세를 알아두어야 한다. 대개, 두 단어로 이루어진 지명은 뒤 단어에 강세를 둔다.

Alabama	Delaware	Italy	Germany
Illinois	New Jersey	Africa	China
Wisconsin	San Diego	France	Japan

• 사람 이름의 강세

사람의 이름은 성(last name)에 좀 더 강세를 두어 읽는다.

John Miller → "존"이 아니라 "잔~"이라고 발음한다.
Shannon Jones → "샤논"이 아니라 "섀넌"이라고 발음하고, Jones는 "조온스"라고 발음한다.
Jackson Leigh → Leigh는 우리나라의 이 씨 성인 Lee를 읽는 것과 같이 "리"라고 발음한다.
Kirk Campbell → Campbell의 -p-는 묵음 처리하여, "캠프벨"이 아니라 "캠블"이라 읽는다.